



주 제:	“순교의 삶”	“성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2008년 7월 6일
복음 묵상:	[마태 10,17-22]	[2역대 24,18-22]	[로마 5,1-5]

물질적인 풍요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항상 먼저 ‘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스스로의 능력과 의지마저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끌려갈 때조차도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10,19) 하십니다.

사실 나의 의지를 전적으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비울 때 가능합니다. 나 자신의 능력조차 완전히 포기하고 비울 때 그 자리에 “아버지의 영”(10,21)이 차지하고 말씀을 대신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이 되고 도구가 되는 법입니다. 또한 능력을 포기하고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곤란합니다. 하느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 됩니다. 이 세상의 환난과 멸시와 박해 안에서 하느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증거자의 유일한 힘이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외로울지라도,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때로는 죽음으로 내 몰릴지라도...

세상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고 스스로 가장 무력한 자가 되는 것! 스스로 박해를 받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에”(로마 5,5) 가능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이신 김대건 신부님을 닮아 증거하는 삶이란 결국 하느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기억해내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162년 전 기꺼이 목을 내 놓으신 안드레아 신부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증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루가 6,22-23 ㄱ) (대구 신증호 신부님 강론 중에서)

1.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지난 주(6/29) 성가대 15 명이 몬트레이 공소를 방문하여 함께 미사를 봉헌한 후 신부님의 영명축일 축하식과 함께 모두 교우들이 모인 가운데 즐거운 저녁시간을 가졌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신 성가대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는 공소 회장님의 감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규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 7/6-7/16 까지 네델란드로 출장을 떠납니다. 여행중에 함께 하시어 모든 일 잘 이루고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 최효훈 토마스 형제님은 전가족 무사히 도착하여 수원 영통에 집을 얻어 7월 1일부터 출근하였다는 연락이 왔으며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 최일해 다니엘 형제님, 사업차 7월 2-9 일, 일주일의 짧은 여정으로 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여행중에 하고저하는 모든 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편안히 다녀 오십시오..
- 이현아 베로니카 자매님, 7월 중순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알림

1. 금주 7월 6일 부터 오후에 30 분간 성가연습을 시작합니다. 교중 미사후 바로 시작할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여러가지 사정으로 성가대 피정 일자를 9월 13일(토)로 변경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피정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 복음 [마태 10,17-22]

너희를 법정에 넘겨 주고 회당에서 매질할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을 조심하여라.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에게 끌려 가 재판을 받으며 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잡혀 갔을 때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때가 오면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일러 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형제끼리 서로 잡아 넘겨 죽게 할 것이며, 아비도 또한 제 자식을 그렇게 하고 자식도 제 부모를 고발하여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 고통의 대가 ♡



세상에는 돈이나, 시간이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겸손이나 진실이나 영생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리더십이나 인내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고통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하느님은 귀중하게 쓰고자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어서 이런 덕목들을 갖추게 하신다,

키위나 펥귤처럼 날지 못하는 새들이 가장 많은 곳이 뉴질랜드라고 한다, 따뜻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여 멀리까지 날아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날개를 안쓰다 보니 퇴화되어 못날게 된 것이다, 사람도 안락하게만 살면 있는 능력도 사장되어 아무 값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 사람의 능력은 위기나 고난의 때에 용량이 커진다고 한다, 톨스토이는 "고통받는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은 전진해 간다," 고 했고 토스엠프스키는 "눈에 눈물이 없으면 영혼에 무지개를 볼 수 없다,"고 했다,

값있고 아름다운 것들은 다 고통을 수반한다, 사랑은 고통을 수반한다, 열병을 앓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목말라한다,

믿음도 고통을 수반한다, 회의와 싸워야되고 핍박을 당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소망도 고통을 수반한다, 오랜 기다림이 있고, 비웃음이 있고 마지막까지 한 편에 서야하기 때문이다,